

‘한숨·눈물·푸념’ 쏟아진 민생현장

■李 대통령 4일 새벽 가락시장 방문

상인들 “장사 안 돼 못 살겠다” 하소연

배추 500포기 즉석 구입...희망 가져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새벽 송파구 가락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지난 9월 초 추석을 앞두고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찾은 이후 약 3개월만으로, 세밀 민생현장을 찾아 경제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챙기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시장 방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전대미문의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보이고 있는 위기극복, 통합, 현장 등이 큰바 '3각 행보'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가락시장에 도착한 것은 동이 트기도 전인 오전 5시 30분.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안내를 받으며 시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곧바로 상인들의 손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한 상인이 “장사가 너무 안돼 못먹고 살 정도”라는 하소연을 듣고 “배춧값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어렵고 이번에는 생산자들이 어렵고, 농민들이 너무 어렵다”며 상인과 농민들을 위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 상인의 권유로 배춧속을 먹어본 뒤 배추 500포기를 즉석에서 구입했으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의 배추 운반을 돕기도 했다.

시장을 돌아보던 중 좌판에서 무 시레기를 파는 박부자 할머니가 감정이 북받친 듯 이 대통령을 잡고 울음을 터뜨리자 이 대통령은 “하루 수입이 얼마 되느냐”고 물은 뒤 노점상을 하던 어머니가 생각난 듯 “내가 선물을 하나 주겠다. 내가 20년 쓰던 건데 아까워도 줘야겠다”면서 목도리를 직접 건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다하다 어려워지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을 달라. 대통령에게 연락하는 방문을 알려줄 테니까”라고 말했다. 시레기 4묶음을 산 이 대통령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할머니와 승강기를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상인이 “시장이 너무 깨끗하면 안된다”며 농수산물 쓰레기 단속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자 “공무원들이 편할 게 아니라 상인들이 편하게 해야 한다”면서 “서울 시장에게 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야외 난로 앞에서 농민들과 커피를 함께 마시며 최근의 경제난을 언급하며 희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해장국 집에서 상인들과 해장국으로 아침식사를 함께 한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박부자 할머니를 언급하며 “하도 울어서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할머니가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눈물이 난다”면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니”라며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다가 노점에서 우거지를 파는 할머니가 자신을 보여달라며 안이주며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부 사회통합위원회 설치해야”

박재완 靑 수석 밝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4일 “법정부적인 사회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통합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이 ‘선진화시대의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지속 가능발전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사회통합 이슈를 취급하고 있으나 지역, 계층, 세대간 갈등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이 위원회는 사회통합 추진의 구심 역할을 맡으면서 사회적 연대식 고취를 위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사회통합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적부적 사회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비롯해 ▲경제위기 극복 ▲노동적 복지 구현 ▲교육복지 확대 및 체계적 고용 대책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새 정부의 사회통합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영산강 뱃길 복원은 수량 확보 차원”

운하 문제, 환경적 차원에서 재론될 것

이만의 환경부장관 전남대 특강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4일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은 담수능력이 적어 오염되고 있는 영산강의 수량(水量)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대 초청 강연에서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친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낙동강이 물길을 내는 사업, 다른 강이 정비·정돈이라면 영산강은 뱃길복원”이라며 “집중호우시 범람 우려가 있는 영산강의 수량을 저장능력 이상으로 확보하는 대안이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강연에서 녹색성장 시대 대의 운송·물류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하며 “컨테이너 200대를 화물차가 끌고 가는 방법과 배에 싣고 가는 것이 주는 환경적 부담을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며 “노이로제처럼 생각되는 운하 문제가 언젠가는 (다시) 거론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의 관광용 뱃길이 국내에 머물 것인지 바다 건너 외국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영산강 구간의 관문을 열면 바닷물로 인한 농업 피해가 발생하므로 생태와 주운(舟運·선박통행)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한편 이 장관은 녹색성장 시대 각광받는 직업인 이른바 ‘그린 잡(Green Job)’을 강조하면서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녹색 전문가’들이 많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 분야와 환경을 연계시킨 융합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민들 다 죽어 가는데...돈 벌어 사고나 치고”

李 대통령 농협 강도 높게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4일 농협을 강도 높게 비판, 향후 인적쇄신을 포함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5시30분경 가락시장 배추 집하장에 도착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농협을 거론하며 “농협이 금융하고 뭐해서 돈을 몇 조씩 벌잖아”라면서 “농협이 번 돈을 농민에게 돌려줘라 이거야. 농협이 벌어가지고 사고나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협이 정치를 하니까 안 된다. 농민을 위해서 온 머리를 다 싸야지”라며 “농협 간부라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권에 개입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언어이 농협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 다 죽어 가는데”라며 “그래서 농협에서 금융을 해서 번 돈도 농민에게 돌려주려면 장비 임대값을 자기가 갖고 있을 때 보다 훨씬 싸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걱정할 것이 없지 않냐. 빛도 안 쬐요.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농협이) 조금 손해 봐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매년 농협이 역대 농협 회장들 전부 그냥 영

똥한 짓을 해서 사고치고, 그래서 안 된다. 농민들에게 전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발언은 역대 농협 간부들의 ‘정치행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권력만 쫓고,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간부들의 행태를 일갈한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실제 조합원 240만명을 거느린 거대 조직인 농협은 지난 80년대 후반 관치에서 벗어나 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이 뽑기 시작한 이후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전 회장 등 1-3대 민선 회장이 비자금 조성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모두 사법처리된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협은 일부 간부들의 정치행보 뿐 아니라 구조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앞으로 농협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2009년 대학가기

중국어로 한국 중국 대학가기

www.littlechina.co.kr

2009년 대학가기

중국어로 한국 중국 대학가기

www.littlechina.co.kr

중국 명문대학 입학반 모집

북경대 청화대 입시준비반

한국외국어대학 FLEX 준비반

국내대학 중국어 수시 준비반